



국내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수출방안

2023. 4

자본시장연구원
선임연구위원 김필규

Contents

- 1 자본시장 인프라를 둘러싼 환경 변화
- 2 한국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사업 현황
- 3 주요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전략
- 4 한국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전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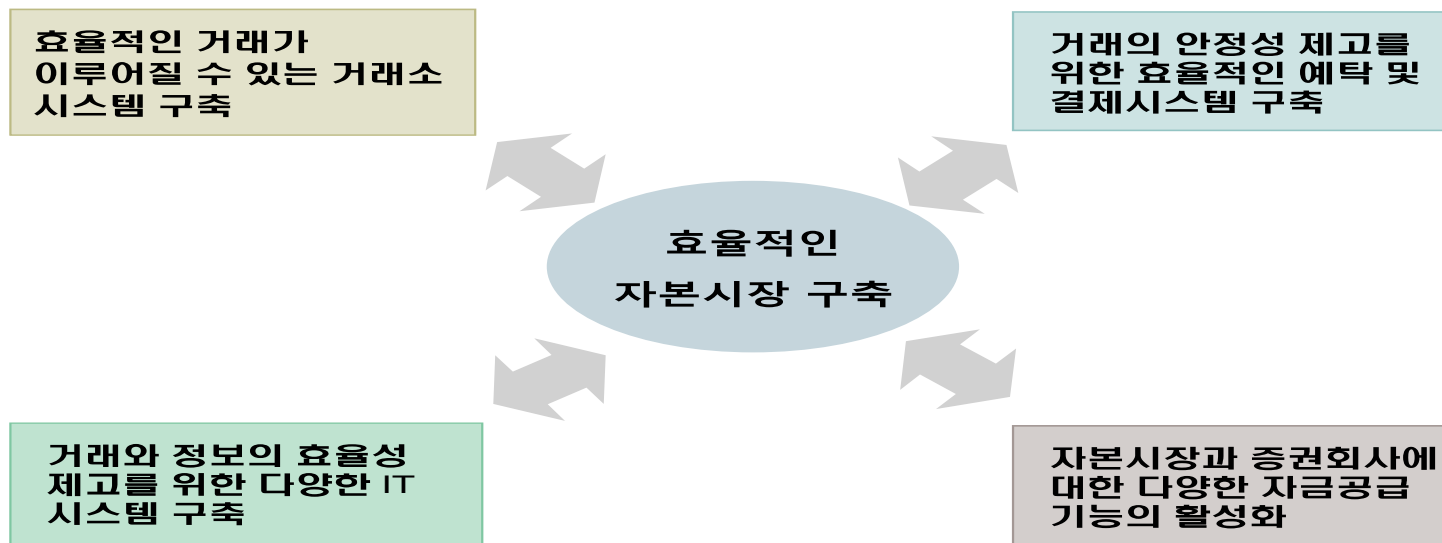
1

자본시장 인프라를 둘러싼 환경 변화

자본시장 인프라 고도화의 수요 증가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 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이 부각
 - ▶ 자본규제, 거래 표준화, 결제 시스템 안정성 제고, 전자거래 도입, 중앙 예탁기관, 거래정보의 공시, 정보저장소 규제 등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
 - ▶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플랫폼, 예탁·결제, 정보 투명성, IT 시스템, 자금공급 활성화 및 거래 지원 서비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고도화 수요 증가

자본시장 인프라의 중요성



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자본시장 인프라의 중요성

● 자본시장 인프라 고도화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

- ▶ IOSCO와 CPSS는 금융시장 내 주요 청산·결제 인프라의 국제권고기준인 '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(PFMI)'을 발표
- ▶ FMI가 수행하는 증권의 청산결제, 예치, 등록 및 지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개별 FMI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도입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PFMI가 도입
- ▶ FMI 조직일반, 리스크관리, 안정성 등 9개 분야 24개 원칙을 제시

●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

- ▶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거래소, 예탁결제원, 코스콤, 증권금융 및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인프라 기관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가 구축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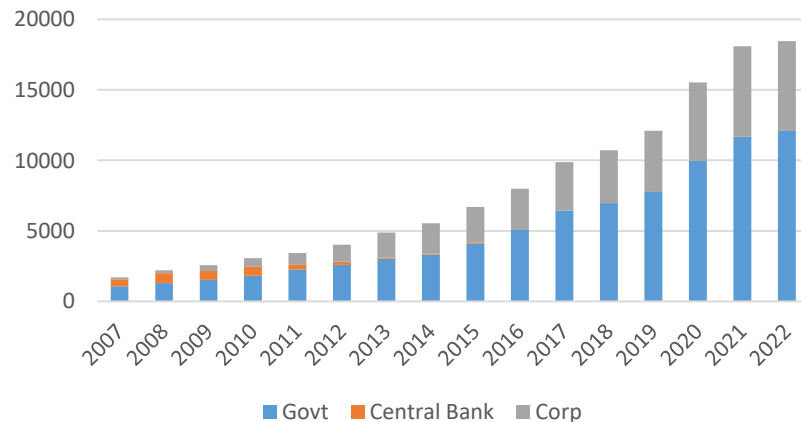
아시아 채권시장 발전

○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ABMI 출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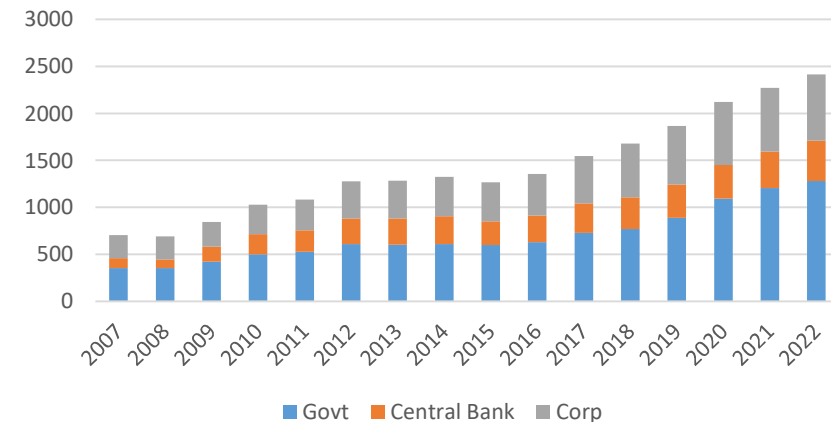
- ▶ ABMI 이후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(domestic market) 규모가 크게 증가
- ▶ 아시아 각국의 글로벌 시장과 연계는 상대적으로 미흡
 - 국가별 신용도의 차이와 예탁·결제 등의 채권시장 인프라의 미흡 등으로 국제채시장의 접근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
- ▶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수요 증가 예상
 -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

아시아 주요국의 Local Currency Bond 잔액 추이

(단위: 십억달러) <중국 채권시장>



(단위: 십억달러) <아세안국가 채권시장>



주: 아세안 국가는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, 홍콩, 싱가포르

아시아 주식시장 발전

- 최근 아시아 주식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으며, 특히 중국, 인도를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
 - › 중국 : 1990년 문을 연 중국 주식 시장은 30년간의 자본시장 개방개혁 움직임 속에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기록
 - 2014년 홍콩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통(滬港通)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방하기 시작
 - 2022년말 기준 시가총액 측면에서 상해거래소는 3위, 선전거래소는 5위를 기록
 - › 인도의 증권시장은 거래소 개설 이래 급격한 성장을 하여 시가총액 측면에서 봄베이거래소와 인도국립거래소의 규모는 10위, 11위를 차지
 - › 동남아시아
 - 아세안국가를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등이 상장기업 및 시가총액 측면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
 - 베트남은 호치민 거래소(2000년 7월 설립)에 370개, 하노이거래소(2005년 3월 설립)에 380종목이 상장되어 있음
 - › 중앙아시아
 -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, 아제르바이잔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성장이 더딘 상황
- 한국이 거래소 개설을 지원한 주요 아세안 국가의 상장기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대한 수준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 - › 2012년 4월 한국거래소와 캄보디아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캄보디아 거래소(CSX)의 경우 현재 상장기업수는 16개이며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 - › 2011년 설립된 라오스거래소의 상장기업수는 11개임

자본시장 인프라의 변화 추이

규제환경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Reg NMS, MiFID 및 PFMI 등과 같은 인프라를 둘러싼 규제 체계 변화
- 아시아의 경우 국가별 규제수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보편적인 알고리즘 매매방식 확산에 제약이 존재

가치사슬 다각화

- 대체 자본시장 인프라의 등장으로 사업의 다각화 추진
- 글로벌 Exchange 그룹의 증권거래 시장 선점 : 상위 15개 거래소가 대체거래소를 포함한 자본시장 거래 산업 수익의 41%를 차지

예탁·결제 부문 변화

- 블록체인,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예탁·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 촉진
- 예탁·결제의 안전성 제고의 중요성 증대

고객기반 변화

- 자본시장 인프라의 축이 판매 부문(IB 및 발행자)에서 투자자 관련 서비스로 이동

자본시장 인프라의 변화 추이

데이터 분석 수요 증가

- 신기술의 발전 및 AI의 도입에 따라 데이터 및 분석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
- 신기술을 장착한 새로운 인프라 상품은 더 많은 효율성 및 더 높은 마진으로 이어지고 있음

핀테크의 부상

- 핀테크는 그 수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
- 일부 핀테크는 자본시장 인프라 모델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
- 예를 들어 자본시장 인프라 산업은 분산 원장 기술(블록체인)을 공동으로 탐구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활용할 수 있음

핵심서비스 유틸리티

- 금융 서비스 회사들의 아웃소싱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 리더로의 자본시장 인프라는 역할이 더욱 강화

신흥시장 인프라 선점 경쟁

- 금융감독체계의 개편,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의 중요성 증대, 투자자 보호의 강화 및 거래소간 통합 등 인프라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
-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추진에 따라 주요 인프라기관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



2

한국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사업 현황

자본시장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

● 자본시장 인프라의 유형

- › 자본시장에서 거래의 원활화와 안정성 및 완결성을 높이는 일련의 서비스
- › trading venues : 장내거래소 위주의 시장구조에서 대체거래소 도입을 통한 다각화 추진
- › information services : 증권거래 정보, 거래의 지원, 규제 정보, 금융정보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
- › technology provider : 매매 서비스, back-up service,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기술 공급, 새로운 금융투자 부문 기술의 지원
- › clearing, settle and deposit : 증권시장 거래 안정화, 국제적 기준의 예탁, 결제 서비스 제공
- › servicing firms : 증권 대행 서비스, 주주 서비스, 자산운용시장 지원, 투자자 지원 서비스

자본시장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

○ 주요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역할

주요 기능		자본시장 인프라의 역할
자본 시장 거래 효율성 제고	통합 거래시스템 구축	KRX: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시장 구축, 국채전문유통시장, ETF시장, 다양한 유형의 파생상품을 포함한 종합 거래소 구축 KOSCOM: 자본시장 각 부문의 거래시스템 및 지원 시스템 구축
	거래의 효율성 제고	KRX: 효율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한국예탁원: 증권 전자등록 시스템 구축 KOSCOM: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IT 서비스의 개발
거래 안정성 제고	거래의 안정성 제고	KRX: CCP 기능의 강화 KOSCOM: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IT 서비스 지원
	시장안정화 장치	KRX: 불공정 행위의 사전적 감시, 시장 안정화 장치의 도입, 다양한 공시시스템의 운용 KOSCOM: 안정적인 증권 전자거래 지원, back-up 시스템
	예탁 결제시스템	KSD: 증권의 예탁, 전자증권시스템 및 각종 권리행사 지원 시스템 운영, 안정적인 증권 결제시스템의 운영
	증권금융시스템	증권금융: 고객예탁금의 집중 관리, 증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거래 안정성 제고

자본시장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

주요 기능		자본시장 인프라의 역할
투자 저변 확대 및 투자자 교육	투자저변 확대	KRX: 거래 편의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저변 확대, 상장 상품의 다양화, 다양한 파생상품의 도입 KOSCOM: 온라인 증권거래시스템, 전문투자자용 초고속 트레이딩시스템,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증권금융: 법인 및 개인고객 대상 증권담보 대출
	투자자 교육	자본시장 인프라기관 공동 투자자교육 협의회 운영 KRX: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투자자 교육 실시 KSD: 고객 연수 프로그램 운영
	다양한 투자상품의 공급	KRX: 신규 투자상품의 지속적 개발 KSD: 다양한 Repo 서비스 개발, 펀드넷개설 KOSCOM: 종합금융정보 단말 서비스, 새로운 투자상품의 거래 시스템 구축
자본시장 정책 지원	자율규제 기능	KRX: 장내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수행 금융투자협회: 장외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수행
	자본시장 정책 지원	금융투자협회: 금융투자업계의 정책 건의 창구 KRX: 매매거래제도 운영, 상장제도 운영, 공시제도 운영, 자본시장 관련 조사 연구 KSD: 고객 재산 보호, 예탁 관련 조사 연구 KOSCOM: 자본시장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증권금융: 고객예탁금 집중관리, 증권사에 대한 자금지원

한국 자본시장 인프라의 특징

○ 자본시장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

- ›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정책
- › 시장의 발달 단계별로 적합한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정책의 추진
- › 자본시장 인프라의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 도입 및 합리적 규제체계 도입

○ 자본시장 발전 단계별로 적합한 인프라체계 도입

- ›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재도약기(1998~2006)에는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 정책을 추진
- › 자본시장 선진화 시기(2007~현재)에는 아시아 금융허브 시장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주요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과 혁신 전략 추진

○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견인하는 인프라시스템의 구축

- ›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는 편의성이 높은 거래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기반 확대에 기여
- › 거래 안정성과 자본시장 거래 지원 및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시스템의 발전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도모
- › 시장상황에 변화에 대응한 자본시장 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

한국거래소의 해외사업 현황

- 한국형 증시의 신흥국의 거래소 개설 사업
 - 2011년 라오스 증시 개설
 - 2012년 캄보디아 증시 개설
 - 2017년 우즈베키스탄 거래소 지분투자
- 해외 거래소 · 규제기관의 증권시장 관련 IT시스템 국제입찰 프로젝트를 수출
 - 2005년 6월 정부의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IT시스템 수출 사업을 본격 진출
 - 2008년 말레이시아 채권매매시스템 납품 이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8개국 거래소 · 규제기관 대상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

KRX의 증시 관련 IT시스템 수출 실적

국가	프로젝트 수행(완료 연도)
말레이시아	채권매매(2008), 마켓메이커모니터링(2009), 이슬람상품매매(2009), 파생상품청산결제(2012)
라오스(증시개설)	증권시장 시스템(2011) - 매매, 청산결제, 원장 등
캄보디아(증시개설)	증권시장 시스템(2012) - 매매, 청산결제, 원장 등
필리핀	시장감시(2012, 2014), 공시(2014)
태국	청산결제(2015), 시장감시(2015)
아제르바이잔	증시현대화 프로젝트(2016) - 매매, 청산결제, 원장, 시감
우즈베키스탄	증시현대화 프로젝트(2016) - 매매, 청산결제, 예탁, 시감
베트남	증권시장 차세대시스템(2020, 진행중)

한국거래소의 해외사업 현황

○ 증시 컨설팅

- ▶ 저소득 신흥국을 대상으로 KRX의 증시육성·운영 및 SME시장 개발 노하우를 활용한 지식전수 사업
 - EBRD, IDB 등 국제기구의 低개발국 지원 사업 및 외교부(KOICA) ODA 사업, 기재부 KSP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행 중
- ▶ 컨설팅·교육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, 이후 해당 국가 증시의 설립 또는 현대화 과정에서 KRX IT시스템 수출 사업으로 연결 기대
 - 베트남 : 1995년 KOICA 증시설립 컨설팅 → 2020년 증시현대화 사업 수출

KRX의 컨설팅 교육 사업 실적

국가	발주기관	프로젝트	시기
베트남	KOICA	베트남 호치민증권거래소 설립지원	1996.11~2000.12
베트남	기재부 KSP	베트남 하노이거래소 설립 자문	2003.6~2003.12
캄보디아	KOICA	증시개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 자문	2007.6~2009.4
캄보디아	KOICA	증시법제 개선 및 발전전략 제시, 증시 인적역량 강화 교육·연수 실시	2015.1~2018.2
루마니아, 몽골, 우크라이나	EBRD	파생시장 설립 및 시장활성화 컨설팅	2015.11~2016.4
멕시코 등 7개국	IDB	중남미 국가 대상 한국 ESG 지수 개발, 투자 및 지속가능경영 연수	2019.7
인도네시아 등 9개국	KOICA	低개발국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 정책역량 교육	2019.9~2019.10

코스콤의 해외사업 현황

○ 거래소 솔루션 공동 사업

- › SI기반의 해외거래소 IT시스템(매매체결, 청산결제, 시장감리 등) 개발 및 유지보수
 - KRX의 해외사업 추진 지원 : KRX는 마케팅/영업을 담당하고, KOSCOM은 영업지원 및 시스템 개발/유지보수를 담당
- ›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아제르바이젠,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6개 자본시장 IT시스템 개발
- › 현재는 베트남 자본시장 차세대시스템 개발 추진

코스콤의 해외사업 현황

○ 금투업계 솔루션

- › 코스콤의 국내 금융 투자업계 대상 솔루션(PowerBase, MTS, K-Front, STP-HUB)의 해외 판매를 추진
 - PowerBase : 고객 계좌관리 및 그에 수반되는 후선 업무와 인프라를 종합 지원
 - MTS :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
 - K-Front :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이 가능한 전문 트레이더용 주문집행 솔루션
 - STP-HUB : Buy-Side(자산운용사 등)와 Sell-Side(증권사 등)간 주문 중계 서비스로, 국내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
- › 아시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코스콤의 증권산업 관련 솔루션 해외 진출을 추진하였으나, 현지 시장 정보 부족 및 가격 경쟁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 부진

코스콤의 금투업계 솔루션 해외사업 추진 경과



한국예탁결제원의 해외사업 현황

○ 주요 수익 사업

- › 시스템 구축: 개도국 대상 자본시장 IT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실시
- › 컨설팅: 수원국의 As-is 모델과 To-be 모델의 GAP 분석 실시 및 정책실무자 대상 정책자문 수행 (기재부 KSP사업 등)

한국예탁결제원의 주요 해외 수익사업 추진 현황

대상국	발주처	사업 내용	기간
태국	TSD(태국 CSD)	증권대차 · REPO시스템 구축	2005.6~2006.3
베트남	VSD(베트남 CSD)	호치민 증시 설립(HOSE) 프로젝트	2011.3~2014.1
ASEAN+3	ADB	RSI 사업타당성 재평가 연구용역	2012.7~2013.4
인도네시아	KSEI (인니 CSD)	차세대시스템 구축 기술자문	2013.1~2015.10
		대차 · REPO시스템 컨설팅	2013.12~2015.7
		펀드시스템(NFS) 구축 컨설팅	2014.11~2015.5
		펀드시스템(NFS) 구축 개발	2015.5~2016.8
		펀드시스템(NFS) 유지보수	2017.1~2021.12
베트남	VSD(베트남 CSD)	펀드서비스 Biz 컨설팅	2017.3~2017.5
아제르바이잔	KDI	(KSP)청산결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	2018.10~2019.7
몽골	KDI	(KSP)국경간 투자지원 인프라 구축 연구	2019.12~2020.9
ASEAN+3	ADB	역내 펀드 인프라 표준화 연구	2021.1~2023.10
몽골	KDI	(KSP) 몽골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	2022.01~2022.9
베트남	KOICA	베트남 자본시장 역량강화사업	2023년 예정
몽골등3개국	ADB	아시아 자본시장 개발 지원 컨설팅	2023년 예정

한국예탁결제원의 해외사업 현황

○ 초청연수

- ▶ 개도국 고위 공무원, 자본시장 참가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형 자본시장 인프라 연수 프로그램 운영

○ 해외기관 전문가 파견

- ▶ 해외 중앙예탁기관(CSD) 및 국제기구 등에 직무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신규 사업기회 창출
 - (해외 CSD) 몽골(MCSD, '18.5~'20.9), 베트남(VSD, '18.5~'19.4), 우즈베키스탄(UzCSD, '19.7~'20.6)에 파견(각 1명)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 - (국제기구) 아시아개발은행(ADB)에 총 1명 파견('22.9~'24.9) 중이며, ADB의 요청 시 파견기간 1년 연장 가능('24.9~'25.9)
 - (재외공관) 한-아세안 금융협력센터에 총 1명 파견('21.7~'23.7)

○ 개도국 자본시장 조사

- ▶ 타겟 국가 잠재수요 발굴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해 19개국을 조사한「新남방. 新북방 주요국 자본시장 편람」발간
 - (신남방) 인니·말레이시아·베트남·필리핀·태국
 - (신북방) 러시아·몽골·우즈베크·카자흐스탄·아제르바이잔
 - (선진국) 미국·영국·독일·일본·캐나다·벨기에·홍콩·중국·싱가폴

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해외사업 당면 문제점

-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해외사업의 지속성 저하
 - ▶ 신흥국 자본시장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투자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
 - ▶ 해외사업은 고급인력의 장기적인 투입이 필요하고, 현지 사정으로 인한 개발 지연 등의 리스크가 높은 상황
 - ▶ 수원국의 자본시장 발전 정도에 따라 시스템 수용성이 낮고, 해당 사업 이외의 개발 및 컨설팅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
 - ▶ 이에 따라 일부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경우 해외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
- 수원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른 사업추진의 애로
 - ▶ 수원국의 거래소 개설, 시스템 수출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, 수원국의 시장여건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른 낮은 수용성으로 사업 동력이 저하
 - ▶ 각국 자본시장 발달 정도 및 제도적 여건에 따라 시스템 수요의 변동성이 높고, 국내 시스템의 해외시장 현지화에 제약이 존재

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해외사업 당면 문제점

● 인프라기관의 중점적인 사업 내용의 변화

- › 2015년까지는 자본시장 인프라기관 공동으로 신흥국 거래소 개설, 시스템 수출, 컨설팅사업 등이 적극 추진
- › 해외 거래소 개설사업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위험 등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IT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위주로 사업 방향이 변화
- › 거래소 시스템 고도화 및 투자회사의 솔루션 사업 부문으로의 확대를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(일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)
- › 최근에는 국제기구 및 KSP 프로그램과 연계한 컨설팅, 거래 시스템 고도화에 중점을 사업을 추진



3

주요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전략

일본의 자본시장 인프라 해외 사업

- 일본은 ABMI 추진, ADB와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금융 인프라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
 - › ABMI를 통해 아시아 결제기구 도입,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 관련 정보 구축 등 채권시장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
 - › ASEAN의 자본시장은 규모나 유동성, 투자자층의 측면에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잠재력이 높은 시장
 - › 이에 따라 일본은 아세안의 시장형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ASEAN 자본시장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
 - › ASEAN+3의 채권시장 구축을 주도하고, 시장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도입을 추진
 - › 이를 통해 아세안의 금융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고, 장기성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역외 투자 활성화, 인프라 수출 기회 확대 및 아세안금융시장 진출 등을 도모
 - › 아시아 채권시장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본시장 인프라의 아세안 수출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상황
- 일본의 금융인프라를 아세안 지역에 확산하는 비즈니스 확대 전략을 추진
 - › ADB와 연계한 아시아 각국의 금융인프라 컨설팅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국의 금융 인프라 수출과 연계
 - ›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아시아 비즈니스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
 - › 아시아 자본시장 육성 촉진과 이를 위한 민관 협동체제 구축하고 일본의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사업 추진
 - › 국가전략으로서의 도쿄의 국제금융센터화 추진

일본의 자본시장 인프라 해외 사업

○ JPX의 해외사업

- ›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 사업을 추진
 - JPX는 World Bank, ADB, EBRD, AfDB, IFC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사업 확장을 추진
- › ADB와 연계한 JPX ProBond시장의 대외 수출 프로젝트 추진
 - 일본 ProBond시장의 해외기업 유치, 주요 아시아 국가의 SME채권시장 구축 컨설팅 사업 추진
- › 국제기구와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JICA(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)를 활용하여 ODA와 연계한 해외사업 확장을 도모
 - ODA 사업에 있어 자본시장 인프라 해외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자본시장 분야의 해외사업의 경우 인재육성이나 IT인프라의 정비지원을 핵심적인 사업 분야로 두고 관련 기관간 진출 대상국의 제도 및 시장 정보의 교류 등을 확대
- › 관계 기관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, 지원사업의 패키지화를 추진하는 등의 통합지원체계 구축

OMX 그룹의 해외 사업

○ 미국 나스닥 OMX그룹의 해외 거래소 지원사업

- › 북유럽의 OMX사를 인수한 이후 IT벤더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까지 세계 100개 이상의 거래소나 증권회사 등에 대해 폭넓게 IT 시스템을 제공
- › 아시아 지역의 시스템 수출
 - 오사카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용 거래 시스템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거래소(SGX), 홍콩 거래소(HKEx), 필리핀 증권거래소(PSE), 뉴질랜드 증권거래소(NZX), 이스탄불 증권거래소(ISE), 아부다비 증권거래소(ADX) 등에 대한 시스템을 제공
- › OMX그룹은 남미, 중동,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시스템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

LSE의 해외 사업

○ 런던 증권거래소

- ›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IT 시스템 구축 사업 적극 추진
- › 2009년에 스리랑카의 IT 벤더인 밀레니엄 IT를 자회사로 두고 자사의 IT 개발
부문의 능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다른 거래소를 위한 시스템 제공도 추진
- › LSE는 콜롬보 증권거래소(CSE), 몽골 증권거래소(MSE), 기타 유럽·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

주요 거래소의 해외사업 전략의 특징

- 초기에는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 협력의 틀을 통해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, 중장기적으로 IT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수익사업으로의 진출을 강화
 - ▶ 글로벌 거래소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회사 조직으로의 변경이나 자체 시장의 상장을 통해 경영의 기동성 제고
 - ▶ 비즈니스 측면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IT 시스템의 기능 강화와 동시에 해외시장의 IT 시스템 개발·유지 사업의 확대를 도모
 - IT 기업 인수매수를 통해 IT 시스템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, 해외 시스템 제공을 통한 수익 확대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도모
 - 신흥국 관련 정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IT 시스템 도입 니즈를 파악하고 신흥국 개발 요구에 대응하여 비즈니스적 관계를 가속화시키는 전략을 추진
 - ▶ 단기간에 비즈니스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IT 시스템 제공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
 - 신흥국 기업의 상장유치 등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도 추진



4

한국 자본시장 인프라 해외수출 확대 방안

자본시장 인프라 해외수출 확대 방안

○ 자본시장 인프라 해외사업의 명확한 목표 설정

- › 금융 부문이 실물경제 지원의 단계를 넘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금융 기관 해외 진출과 더불어 자본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
 -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사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되어야 함
- › 국내 인프라기관의 해외 사업 목표 설정
 - 해외 금융시장 개척, 수익성 제고, 장기적인 금융 협력 강화, 국내 금융기관 해외 진출 지원 등 명확한 사업 목표의 설정이 중요
 - 인프라기관의 경영전략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

○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단계적 해외사업 추진 전략 수립

- › ODA사업 등 국제 협력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원대상국의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사업화로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
 - KSP 사업의 자본시장 인프라 부문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음
- › 피지원국의 경제규모와 자본시장의 성숙도 및 비용부담 등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 및 향후 사업성 공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
 -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인건비를 투입하여 개발된 국내 IT솔루션이 저개발 국가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움
 -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어디에서 부담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
 - 사업 추진에 있어 현지 시장의 발전 가능성, 수익성 및 위험에 대한 사전 분석 강화
- ›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자본시장 발전 정도에 따른 수익사업화 추진

자본시장 인프라 해외수출 확대 방안

○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

- › KSP, 국제기구와의 협업, 인프라 기관 간의 협업 및 공동 대응 체계 수립
- ›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간의 공동업무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
 - 해외정보 수집, 마케팅, 기술개발 등 기구축한 협업체계를 고도화하고 공동으로 해외사업을 추진
 - 사업화가 가능한 부문에 대한 KSP 사업과의 연계 강화 및 정부의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 수출의 효율성 제고
 - 해외 인프라 사업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전문가 및 현지 컨설턴트 관련 정보 풀을 구축
- › 금융기관 해외 진출과 연계한 해외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
 -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금융투자회사 솔루션 사업의 진출 검토

○ 신흥국의 제도와 업무 영역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의 추진

- › 초기에는 국제기구, KSP 등과 연계한 자본시장 인프라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현지의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, 동 사업을 통해 현지의 수요 파악,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검토
 - 효율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의 제도 및 시장 상황에 이해도가 높은 현지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화 가능성 등을 검토
- ›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인프라기관 공동으로 현지법인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
 - 현지법인 설립이나 자본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위험과 수익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

자본시장 인프라 해외수출 확대 방안

○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

- ▶ 피지원국의 규제, 자본시장 성숙도, 시장 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사업화의 중요한 요소
- ▶ 국제기구, ODA 등과 연계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
 - 국제기구의 신흥국 컨설팅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이 해외사업의 기회를 파악하고 사업화 추진에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음
- ▶ 체계적인 정보 구축을 위해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취합하여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 - 해외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금융기관의 현지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, 현지의 컨설팅 및 IT수요 파악
 - 현지 시장 및 규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



Thank You!